



특수학교의 긍정적 행동중재와 지원(PBIS)에
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지원요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중심으로*

강 영 모** · 손 승 현*** · 정 광 조****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Regarding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and Supports (PBIS) in Special Schools:
A Focus Group Interview (FGI)

Kang, Youngmo ** · Son, Seung Hyun *** · Jung, Kwang Jo****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xperiences and support need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regarding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and supports (PBIS) in special school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nine special education teachers working at a special school in Seoul.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with these participants. The FGI was carried out for approximately two hours on Zoom, recorded, and transcrib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Results]** Four domains, “Teacher competency,” “Parental cooperation,” “School system,” and “Policy and institution,” as well as nine categories and 22 meaning units were derived through thematic analysis. The detailed contents were described, focusing on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the support requests they have made due to unexpected situations. **[Conclusion]** School-wide PBIS could be implemented faithfully and meaningfully with the teachers’ receptive attitude, parental cooperation, collaboration among school administrators, and a supportive system.

Key Words : Special school,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and supports (PBIS), Perceptions and support needs, Focus group interviews (FGI)

*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Junior Fellow Research Grant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제 1저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Doctoral student, Dep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sshysk@korea.ac.kr)
Professor, Dep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 공동저자,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Visiting professor, Dept.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국외에서는 긍정적 행동중재와 지원(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and supports, PBIS)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되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18년을 기준으로 약 27,000개 학교에서 PBIS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21개국에서 PBIS를 적용하고 있다(Sugai, 2018). PBIS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바람직한 행동들은 증가시키고 부적절한 행동은 감소시키기 위해 사전 예방과 적절한 대체 행동에 관한 교수를 증거기반의 실제(evidence-based practice, EBP)에 따라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개인 차원, 학급 차원, 그리고 학교 차원 PBIS로 확장되어 사용된 것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심은정, 박지연, 2019). 이러한 PBIS는 체계 구성, 자료 수집, 증거기반 실제 등을 성공적인 실행 요소로 강조한다(정광범, 심현양, 김해선, 2018; office of special education program: OSEP, 2010).

국내에서도 2000년 PBIS에 관한 논문이 처음 발표된 이후(정길순, 노진아, 2011), PBIS 관련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조재규(2021)에 따르면 최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PBIS 관련 연구는 총 203편으로 연평균 20편 이상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국내 특수교사들의 PBIS에 대한 인식과 지식 수준은 충분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오혜정과 김미선(2011)은 경기·인천 지역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PBIS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은 PBIS의 개념에 대한 지식적 측면은 친숙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PBIS는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 감소와 긍정적인 행동의 증가라는 효과 외에 교사의 자기 효능감과 전문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가능한 한 빠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최근에 PBIS가 교사의 자기 효능감 향상은 물론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임선영과 최하영(2019)은 특수학교 중학교에서 학교 차원의 PBIS를 실행하고 분석한 결과, PBIS가 특수교사의 학급관리 기술과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심은정과 박지연(2019)의 연구에서도 PBIS 연수가 교사의 학급관리, 행동문제 해결력, 대인관계효능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PBIS가 뿌리를 내리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보편적 지원을 실행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외 실험 연구 13편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김경양 외, 2010) 교실체계 영역에서 중재 충실도 지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특히 PBIS의 적용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PBIS가 실행되고 있지만(김우리, 2014; 김영표, 2018; 이효정, 김은혜, 2018) 아직까지 특수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김경양 외, 2010). 예를 들어, 김예리(2017)는 PBIS 실행에서 교사들은 행동 지원에 관한 경험 부족과 참고할만한 자료가 부족해서 막막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임선영과 최하영(2019)도 PBIS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중재 충실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PBIS가 국내 특수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 학교 체계가 변화해야 하는데 아직 현장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성구 외(2020)는 학교 차원의 PBIS에 대한 중등 특수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PBIS가 학교 체계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명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오혜정과 김미선(2011)도 특수교사들의 PBIS의 실행 정도와 실행 효과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라고 하였다. 특히 PBIS 실행의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모델 프로그램의 부족과 협력적인 관계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에 따라 국내 특수학교 현장에 PBIS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김우리(2014)는 학교 차원 PBIS 모형의 중요성과 현장 실행 가능성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에서 팀 접근과 PBIS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손유니와 박지연(2015)은 교사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홍주희 외(2020)는 S시 교육청에서 운영한 PBIS의 개별지원팀 구성원들의 경험과 인식에 대해 연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 행동지원단 사업이 PBIS의 성과를 향상하고 일반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설문 및 면담 위주의 연구로 PBIS에 대한 질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이라는 점과(강성구 외, 2020) PBIS의 정책적 집행과 관련된 교사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홍주희 외, 2020)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홍주희 외(2020)의 연구에서 제시된 S시 교육청의 긍정적 행동지원단 사업의 경우에는 S시 교육청에서 PBIS를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상당한 예산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협력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 긍정적 행동지원단에 참여하지 않은 특수학교의 교사들 혹은 PBIS를 경험해 보지 못한 특수교사들은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즉, 특수학교에서 실행하는 PBIS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나 의견을 가진 특수교사들에 대한 질적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수학교 현장에 PBIS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현재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활용하여 현장에서의 경험과 지원요구를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PBIS가 국내에 적용되고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성구 외, 2020; 김예리, 2017; 김우리, 2014; 손유니, 박지연, 2015; 오혜정, 김미선, 2011; 홍주희 외, 2020) 학생은 물론 교사의 자기 효능감 및 전문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심은정, 박지연, 2019; 임선영, 최하영, 2019) 특수학교에서 PBIS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특수교사들이 느끼는 생각이나 현실, 어려움의 원인 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PBIS를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지원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2. 연구 문제

첫째, 특수학교에서 실행하는 긍정적 행동중재와 지원(PBIS)에 관한 특수교사들의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특수학교에서 실행하는 긍정적 행동중재와 지원(PBIS)에 관한 특수교사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S시에 소재한 10여 곳의 특수학교 교사에게 인터뷰 협조를 요청하였다.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A교부터 E교까지 총 5개교에서 9명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둘째, 학부 과정의 교과목 이수, PBIS 교원 연수, 대학원 진학 등의 경험을 통해 PBIS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 셋째, 특수학교에서 실행한 PBIS 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이다.

<표 1>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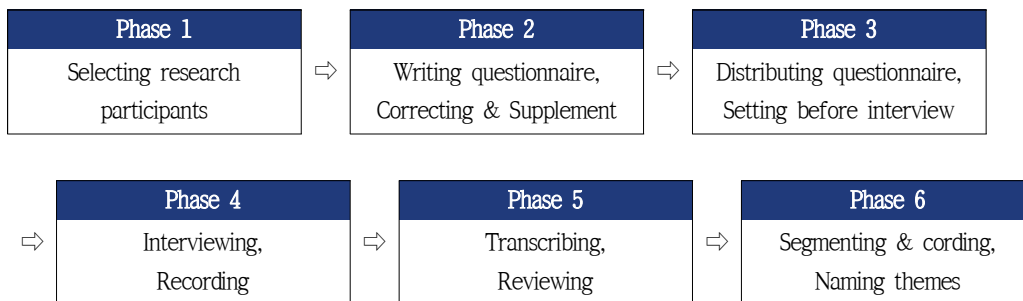
<Table 1> Information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Gender	School	Career	Degree	PBIS related experience
T-A-1	Female	Public (Secondary)	6years	B.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IS undergraduate course • PBIS in-service training • Participation in PBIS teacher learning community
T-A-2	Female	Public (Secondary)	1year	B.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IS undergraduate course • PBIS in-service training • Participation in PBIS teacher learning community
T-B-1	Female	Public (Secondary)	4years	M.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IS undergraduate course • PBIS in-service training • Participation in PBIS teacher learning community • Graduate-level education • Conference & seminar participation
T-B-2	Male	Public (Secondary)	3years	B.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IS undergraduate course • PBIS in-service training
T-C-1	Female	Public (Secondary)	10years	M.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IS undergraduate course • PBIS in-service training • Graduate-level education • Conference & seminar participation
T-C-2	Male	Public (Secondary)	1year	B.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IS undergraduate course • PBIS in-service training • School-wide PBIS team
T-D-1	Female	Private (Secondary)	5years	B.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IS undergraduate course • PBIS in-service training
T-D-2	Male	Private (Secondary)	2years	B.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IS undergraduate course • PBIS in-service training
T-E-1	Female	Private (Elementary)	10years	B.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IS undergraduate course • PBIS in-service training • Participation in PBIS teacher learning community • School-wide PBIS team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특수학교에서 실행하는 PBIS에 관하여 특수교사의 경험과 지원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관심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한 데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제에 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 (Stewart & Shamdasani, 2014/2018).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로 알기 어려운 심층적인 의견을 발견할 수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 의견을 보완할 수 있다(Morgan & Krueger, 1997/2004).

FGI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 대상 모집 단계, 둘째 연구 내용의 개념화 및 질문 개발 단계, 셋째 인터뷰 실시 단계, 넷째 인터뷰 내용 분석 단계, 다섯째, 보고서 작성 단계이다(Morgan & Krueger, 1997/200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경옥, 2021; 박혜진, 김용영, 2019)의 연구 절차를 참고하여 <그림 1>과 같이 세부적인 단계를 설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Figure 1> FGI process

3. 자료 수집

1) 질문지 작성 및 수정

연구자는 사전 회의를 통해 FGI를 실시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Krueger & Casey(2014)가 제시한 질문 방식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시작 질문(opening question) 1개, 전환 질문(transition question) 1개, 핵심 질문(key questions) 4개, 마무리 질문(ending question) 1개로 구성하였다.

질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개방형으로 작성하였으며(강성구 외, 2020; 권희연, 박중휘, 김미선, 2017; 김예리, 2017; 홍주희 외, 2020) 질문이 연구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K 대학교의 특수교육전공 전임교수 1인, S 대학교의 겸임교수 1인, 특수교사 2인, 총 4인에게 검토 의견을 요청하였다.

검토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의 의도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해당 문장을 수정하였으며 부자연스러운 질문의 순서를 수정하였다. 질문의 최종 완성본은 아래 <표 2>와 같다.

2) 질문지 배포 및 사전 준비

인터뷰 예정일로부터 1주일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사전 안내문은 한글 파일(.hwp) 형식으로 작성하였으며 SNS(social network service) 앱(application)을 활용하여 파일을 공유하였다. 사전 안내문에는 인터뷰 주제, 일시, 방법에 대해 자세한 안내와 감사의 글을 작성하였다.

사전 안내문에는 연구 참여자의 기초 정보를 조사하기 위한 양식을 첨부하였다. 성명, 재직교, 현 소속, 총 교육경력, PBIS 관련 경험, 연락처, 교원자격증, 최종 학력, 졸업일, 연구 참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요청하였다. 인터뷰 전 ZOOM 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결 상태와 진행 순서 등을 점검하였다.

<Table 2> The structure and description of FGI questions

Questions	Description
Opening question	Please introduce your name, the school you are working at, and the tasks you are responsible for.
Transition question	How much has the PBIS-related education you learned in college actually helped you in coping with problem behaviors in special schools?
Key question (1)	When a student exhibits serious problem behavior, what method does the you or surrounding teachers use to observe, record, and perform 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 (FBA)?
Key question (2)	What do you think are the biggest obstacles to implementing school-wide PBIS, class-wide PBIS, or individual-wide PBIS? And what method or support do you think is needed to solve this?
Key question (3)	For practical PBIS implementation, a team must be formed. Who do you think should be included in the PBIS team, and what role do you think they should play?
Key question (4)	Parents are very interested in changing student's behavior. However, research shows that parents are more likely to get information from community agencies than from schools. What support do you think should be provided to encourage active parent involvement in the school PBIS team?
Ending question	What do you think needs to be improved in order for PBIS to be continue into the next school year (sustainability), faithfully implemented based on behavioral principles (treatment fidelity), and expanded and applied to many students (maintenance and generalization)?

3) 인터뷰 실시 및 기록

인터뷰 실시 전 전화통화를 하여 참여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를 확인하고 장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메일로 사전 안내문, 질문지를 발송하여 인터뷰 대상이 내용을 숙지하고 인터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면대면 인터뷰가 불가능하여,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인 ZOOM을 활용하여 대략 2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주제가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FGI 경험이 많은 코디네이터가 참석하여 인터뷰를 보조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메모할 수 있도록 참가자에게 안내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동영상으로 녹화되었으며 인터뷰 종료 후, 모든 참여자에게 모바일상품권으로 소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4. 자료 분석

1) 전사본 작성 및 검토

FGI 종료 이후 1주일 간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였다. 인터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인사말과 안내사항을 제외한 모든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였다. 전사는 선행연구(이경숙, 박진아, 2016)가 활용한 Krueger & Casey(2014)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사를 위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기술인 STT(speech to text)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본 연구의 내용을 모르는 외부 인원 1명이 STT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초고를 작성한 뒤 오디오 파일(.mp3)을 다시 들으면서 부정확한 단어를 수정하여(예: 그 감성이 → 교감 선생님) 1차 전사본을 작성했다. 둘째, 1차 전사본을 바탕으로 제1 연구자가 오디오 파일(.mp3)과 당시 작성한 노트를 확인하면서 2차 전사본을 작성하였다. 화자와 청자의 구분, 오타 여부, 표현이나 용어상의 오류를 점검하였다. 셋째, 2차 전사본을 바탕으로 FGI에 참여한 교사 1명이 오디오 파일(.mp3)을 교차 검토하였다.

2) 내용 분석 및 주제 도출

분석 방법은 인터뷰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여(최은원, 남경욱, 신현기, 2017; Boeije, 2002)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Yin, 2010/2013). 주제 분석은 질적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분석 방법으로 데이터 내의 패턴 즉, 주제를 식별하고 의미를 분석 및 구조화하는 방법이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유연하고 유용한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주제 분석에서 사용하는 분류는 주제별 약호화(coding)이다. 약호화를 통해서 방대한 자료를 분석 가능한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고(최윤정, 박소영, 김주희, 2019) 특정한 용어나 주제어를 중심으로 인터뷰 내용을 범주화시킴으로써 해당 텍스트가 가지는 의미를 함축적인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다(이용주, 김영천, 2008; Miles, Huberman, & Saldana, 2018). 세그멘팅(segmenting), 초기 코딩, 심층 코딩, 주제 도출을 실시하였으며(김의정 외, 2011; Yin, 2010/2013)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그멘팅은 전사본을 읽으면서 자료의 의미가 드러나 있는 문장을 괄호로 묶었다. 둘째, 초기 코딩은 세그멘팅한 자료에 1차 명칭을 부여하였다. 이때 자료를 종합적으로 읽으면서 관련 있는 내용을 묶어서 명칭을 부여하였다. 연구 목적과의 관련성을 생각하며, 상세하게 기술하며, 핵심 의미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셋째, 심층 코딩은 초기 코딩을 심화시키기 위해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관련 있는 코드를 범주화하고 범주와 초기 코딩을 연결하였다. 넷째, 주제 도출은 자료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해 관련 있는 자료 범주를 종합하는 상위 코드를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의 전반적인 과정은 자료 내의 항목들 사이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비교하여 주제를 도출하였다(최은원, 남경옥, 신현기, 2017; Boeije, 2002).

5.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

본 연구에서는 코딩 과정에서 내용 분석의 신뢰도 확인을 위하여, 각각의 영역별 관련성을 검토하여 의미범주별로 전사본을 살펴보고 해당 진술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분석한 자료가 원자료를 잘 반영하는지 검토 및 정리하였다(이경숙, 박진아, 2016). 전체 전사 자료를 제1 저자와 제2 저자가 서로 코딩한 결과를 비교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코딩에 대해서는 토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포함한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터뷰 참여자에게 추가로 내용 확인을 하였다. 내용 확인은 4가지 기준을 안내하여 의견을 수렴했다.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바탕으로 보충할 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오선화, 황은영, 2019). 자료 분석 과정에서 동료 평가를 활용하여 분석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의견 조율의 과정을 거쳤다(박경옥, 서선진, 2019).

6.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윤리적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이 학술적인 용도임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구하였다. 둘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를 중단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셋째, 수집한 오디오 파일(.mp3)과 전사본(.hwp), 제출한 기초 정보 등은 연구 종료 후 폐기됨을 안내하였다. 넷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알파벳으로 대체하여 기록함으로써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안내하였다(김슬기, 김자경, 서주영, 2021).

Ⅲ. 연구 결과

특수학교의 PBIS에 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지원 요구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Contents derived from the FGI

Category	Sub-category	Content
Teacher competency	1) Lack of pre-service training	(1) Lack of courses offered by universities (2)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2) Practical difficulties	(1) Narrative observation, recording, evaluation (2) Observation of behavior using video (3) The need for professional measurement
	3) Teachers' attitude	(1) Receptive attitude of individual teacher (2) Cooperative attitude among teachers
Parental cooperation	1) Relationship with parent	(1) Parental distrust and non-cooperation (2) Ways to build trustworthy relationships
	2) Mutual supports	(1) Parent education and communication (2) Explanation and sharing of information (3) Role as a member of the PBIS team
School system	1) Current limitations	(1) Lack or imbalance of budget (2) Improper placement of students (3) Manager awareness and cooperation
	2) Systematic environment	(1) Recruiting PBIS team members (2) Establish a consistent environment (3) Activation of the learning community
Policy & institution	1) Treatment fidelity	(1) Preventive efforts, educational aspects (2) Sharing success of special schools (3) Teachers specialized in behavior analysis
	2) System supplement	(1) Network of experts such as doctors (2) Teacher placement and budget formation
Total 4	Total 9	Total 23

1. 교사의 역량

1) 사전 교육의 미비

(1) 사례 중심 이수 과목의 부족

특수교사들은 대학에서 수강했던 이수 과목들이 이론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례 중심의 실습 과목들이 부족하였다고 하였다. 특수학교 현장에서 직접 PBIS를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하려면 사례 중심의 실습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학에서는 긍정적 행동지원이 어떤 건지 개별적으로 설명만 하니까 머릿속에 개념을 가지고만 있었어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실행해보고 나니까 직접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없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T-A-1)

대학에서 배운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배웠던 이론이랑 현장에서 적용되는 PBIS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많이 배운다고 해서 현장에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T-B-1)

(2) 이론과 실제 현장의 격차

대학에서의 사전 교육이나 취업 후 연수 등을 통해 이론을 접한다고 할지라도 이론과 실제 특수학교의 현장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공통적으로 말하였다. 따라서 특수학교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관찰법이나 기록법은 솔직히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메모식으로 기록해 놓거나 그 시간에 겪었던 문제행동을 구두로 담임교사에게 전달하고 ... <중략> ... 기능평가도 학생이 이번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선행사건이나 배경사건을 담임교사에게 물어봐서 기능을 유추하거나 아니면 이전 교과 교사한테 물어보거나 하는 식으로 ... (T-C-2)

이론적인 것은 확실히 많이 이해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적용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증증이다보니까 이해를 하는 학생들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PBIS를) 이해하는 소수의 학생들한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또 사례가 너무 다양하고 아이들이 증증이다보니까 ... (T-E-1)

2) 학급 내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

(1) 서술식 관찰, 기록, 평가

학급 내에서 특수교사가 학생들의 관찰, 기록, 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대부분 서술식으로 학생을 관찰하거나 평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동료 교사들과 논의하면서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6-7명의 학생을 지도하면서 측정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서술식 관찰, 기록, 평가 또한 교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일부 교사에게는 업무 과중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학급에) 교과로 들어가든 담임으로 들어가든 환경 자체가 수집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애들이 벽에 머리를 박거나 공격행동을 하는 와중에 ABC 기록을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기록을) 해보려고 해도 주위의 환경이 뒷받침해 주지 않아서 학교에서 ABC 관찰이나 기능평가를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B-1)

저희 같은 경우 상담을 월 2회 정도 하는데요, 상담일지에 특정 시간이나 날에 학생의 기분과 문제행동,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쓰고 (교사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선행사건을 쓰는데 서술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 선생님이랑 담임 선생님이랑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학생이 보이는 문제행동이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T-E-1)

(2) 영상을 활용한 행동 관찰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행동을 관찰하기 어렵고,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카메라를 활용하여 보완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영상을 통해 행동을 관찰하면 일대일 치료 상황에서도 놓칠 수 있는 세세한 행동의 형태와 기능,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이를 원치 않는 교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반대로 필요한 교사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실제 현장에서 기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업을 하면서 애가 막 머리에 자해도 하고 공격행동을 하는데 그걸 중재하는 데 동시에 이렇게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로 동영상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수업하는 것을 제 수업을 계속 찍고 그러면 제가 수업하는 도중에 제가 학생들이 놓쳤던 문제행동이 왜 일어났는지도 그걸 보면 좀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T-B-2)

(3) 전문적인 측정의 필요성

학생의 행동에 관한 관찰, 기록, 평가는 상단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서술식으로 수

행할 수도 있고 영상도 활용할 수 있지만 교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측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행동분석에 관한 자격을 갖춘 행동분석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행동분석전문가가 PBIS 팀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담당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학생 개인의 문제행동이라든지 선행사건, 기능평가 등은 행동분석전문가가 분석해 준다면 교사의 업무도 줄어들고,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문제행동이나 다양한 행동들을 체크해 준다면 교사도 훨씬 학생들을 지도하기 편하고 못 봤던 부분들을 이제 다 체크 할 수가 있으니까요 ... (T-B-1)

3) 교사의 태도 성찰

(1) 교사 개인의 수용적 태도

특수교사 대부분은 자신이 평소에 해왔던 행동 지도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교육관에 의해서 학생의 행동을 지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확고한 교육관과 교육 철학도 중요하지만 수용적 태도를 갖추도록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PBIS 실행에 있어서 장애유형이나 생활연령보다 교사 개인의 의지와 태도에 주목한 것이다.

교사의 수용성이나 태도가 PBIS 실행의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교사 입장에서 누군가 내 수업을 관찰하고 '선생님의 이러한 행동이 ○○○ 학생한테 악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근데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사의 수업 태도나 비일관적인 강화 등을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인데 교사는 다르게 받아들여서 PBIS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T-B-1)

PBIS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사의 의지라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이런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1년 한다고 해서 되겠어?'라는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거든요. 교사가 포기했을 때 학생은 그 문제행동은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중략> ... '이렇게 하면은 점진적이지만 학생의 문제행동은 고칠 수 있어'라는 인식의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교사가 의지가 없으면 학생의 문제행동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T-B-2)

(2) 교사들 간의 협력적 태도

교사 개인이 수용적인 태도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 간의 협력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서 논의되었다. 협력도 결국 교사의 교육관과 교육 철학과 관련이 있는 요소이며 PBIS의 성공을 위해 교사의 협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학교 차원에서 매뉴얼을 명확하게 수립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모든 교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담임교사 혼자 노력한다고 하는데 PBIS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정도의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T-C-1)

제가 모 학교에서 PBIS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선생님들 간의 교육관, 그다음에 기능평가를 할 때 다르게 해석을 하죠. 가설도 다르고 가설에 따른 중재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중략> ... 그래서 선생님들 간의 교육관, 그 다음에 접근 방법에서의 차이, 그에 따른 합의, 합의가 안 되다 보니 협력까지도 안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T-D-1)

2. 학부모 협력

1) 학부모-교사 관계

(1) 학부모의 불신 및 비협조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지 않고 교사와 소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특수교사들은 공감하였다. 학부모의 비협조가 PBIS를 실행하는 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제가 학생을 대상으로 행동 지원을 하려고 했을 때 학부모님께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센터에 가서 굉장히 많은 연수나 교육을 받으셨고 또 학생을 많이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드리더라도 처음에는 신뢰를 많이 못하셨고 불안해하시고 항상 걱정하시는 대답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거든요. (T-A-1)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교사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들을 조금 더 신뢰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보다는 전문가들을 신뢰하니까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뭔가 교사랑 학부모님 사이에 대화를 좀 더 원활하게 하면 (조금 더 협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T-B-2)

부모님이 학교에는 학생의 삶을 빼길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학교 시간에 학생이 차에 타면서 자해를 하니까 바로 소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비밀관적인 모습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중재할 의욕이 많이 안 생기더라고요. 집에서는 쪽 저렇게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폭력에 노출되게 되니까 학생의 문제행동 수준이 점점 심각해지고 빈도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T-C-2)

(2) 신뢰로운 관계 형성 방안

특수교사는 학부모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안으로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객관적인 지표에 근거하여 학생에게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많은 연구를 했던 선생님들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팁을 얻을 수 있으면, 그리고 그 팁을 가지고 학부모님과 대화를 한다면, 굉장히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뢰하고 같이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T-A-1)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 학생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PBIS를 진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들을 학부모에게도 전달한다면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하고 또 교사를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결과들을 다음 연도 교사에게 인수인계하면 학생에게 일관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T-A-2)

2) 학부모 상호 지원

(1) 부모교육과 소통의 장(場)

학부모가 비협조적이거나 비일관적 태도로 학생을 양육하면 학교에서 실행하는 PBIS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보다 일관성 있게 PBIS를 실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의사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중략> ... 그다음에 담임교사랑 관리자 대 학부모님 이렇게 주기적인 회의 및 대화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T-C-1)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사들을 연수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를 초빙해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그런 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T-C-2)

기관이나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 한 명만 신뢰하게 되는 게 아니라 기관이나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이 모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T-D-2)

(2) 학생 정보의 설명과 공유

학부모는 부모교육을 받고 학교의 지원을 받는 등의 단순히 수동적인 역할만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을 위해서 학생의 현재 상태나 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PBIS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려면 교사랑 학부모, 외부 환경 이렇게 세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한들 가정에서 협조가 안 되면 일반화가 안 되고, 가정에서 아무리 잘 돼도 학교에서 그게 안 되면은 똑같이 일반화가 안 되는 것처럼 ... (T-B-1)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지를 작성해 주셔서 밤 동안에,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나마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메시지라도 주시면 저희가 학생의 행동 변화에 대해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정확하게 구축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T-C-1)

(3) 팀의 구성원으로서 역할

학부모가 PBIS 팀 혹은 개별화교육계획팀의 중요하고 실제적인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학생의 보호자로서 이미 충분히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팀 구성원, 그리고 우리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모님이랑, 담임교사랑, 교장·교감 선생님이랑, 행동분석가도 좋고, 그다음에 학생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포함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방과후학교도 많이 가고 인지치료도 가고 하니까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PBIS의 어떤 결과를 회의를 했을 때 메신저라도 해서 이제 모든 학교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공론화하고 발표해서 한 학생을 위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T-A-2)

3. 학교 시스템

1) 학교 환경의 제약

(1) 예산의 부족 혹은 불균형

PBIS를 실행할 때 예산이 부족하여 일부의 교사에게만 소액의 예산이 지원되고, 다른 교사는 사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마다 PBIS에 배정된 예산의 편차가 심하다고 하였다. 예산이 과다한 학교에서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작용하였고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활동의 제한을 받는 등 다양한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에게만 학생 1인당 1만원씩 보상에 줄 수 있는 비용이 제공이 되는데 교과 담당으로 있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은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 (T-D-2)

예산의 편차가 너무 큰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1,000만 원, 어느 학교는 100만 원. 그런데 결과는 모두 1,000만 원의 가치를 내야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교사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PBIS가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결과를 내기 위한 PBIS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 (T-E-1)

(2) 경험에 의존한 학생 배치

특수교사의 경험에 의하면 감각 특성이 전혀 다른 두 학생이 한 학급에 배치된 사례가 있었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이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학생 배치와 교원 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다음 학년도의 학급 구성은 현 담임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주관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데이터에 기반한 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 학교에는 감각 특성이 상이한 학생 두 명이 같은 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한 학생은 감각 추구, 한 학생은 감각 회피 특성을 보이는데 제가 이 학생을 중재하면 다른 학생이 그 중재를 싫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중재 상황에서 제가 폭력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 (T-C-2)

(3) 관리자 인식과 협조 부족

PBIS의 중요성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이나 협조가 부족하여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교사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다른 교사 의견에 공감하였다. 관리자는 위험 요소에 대한 걱정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교사가 관리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변화 사례가 더욱 요구된다.

제가 어떤 걸 제안을 하면 학교에서 '안 된다, 위험하다, 위험 요소가 있다', 어떤 건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며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 <중략> ... 걱정이 많으시고, 항상 위험 부담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중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T-A-1)

저도 앞서 ○○○ 선생님이랑 ○○○ 선생님 말씀처럼 가장 힘들었던 게 관리자들을 이해시키는 거였거든요. ... <중략> ... 저는 표를 만들어서 (상담실에) 하루에 몇 번을 갔고, 공격행동을 한 시간 동안 몇 번을 했고, 수치화로 적어서 부모님이랑 관리자한테 복사해서 보여드리는 방식을 선택을 했구요. 그런데 이걸 저희 교사가 왜 이렇게 약간 변명하듯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 (T-C-1)

긍정적 행동지원이 학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 <중략> ... 그렇다면 이런 현실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차원의 매뉴얼을 명확하게 수립해서 ... (T-C-2)

2) 체계적 환경 구축

(1) PBIS 팀 구성원 확보하기

학교는 체계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PBIS 팀에 다양한 구성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요원이 때로는 교사보다 학생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부담임교사 혹은 상담교사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저는 부담임에 대해서도 생각해봤거든요. 사실 부담임이 등·하교지도, 식사지도, 배변 활동, 그리고 다른 학교는 모르지만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부담임이 자신이 부담임인 반의 가장 많은 시수를 담당하는 교과 교사거든요. 그런 걸 좀 더 고려해 봤을 때 ... <중략> ... 부담임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PBIS 팀의 범위 안에 더 포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T-C-2)

보조인력이 PBIS 팀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반도 보조인력이 다른 학생들도 지원하지만 (개별지원 대상) 학생과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 보조인력이 보는 모습도 따로 있을 거고 보조인력만이 할 수 있는 것도 따로 있는데 보조인력의 이야기도 함께 팀에서 역할을 맡아서 함께 해 주면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이 보지 못하는 모습도 보조인력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 (T-D-2)

저희는 상담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상담교사 시수가 적어요. ... <중략> ... 상담교사가 전문성을 가져서 상담교사도 같이 참여를 해서 PBIS 회의에도 들어가서 그 학교의 문제행동에 대해 파악을 하고 또 기록 같은 것도 상담교사가 작성하면서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면 좋겠어서 저는 상담교사가 구성원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T-E-1)

(2) 일관된 교육 환경을 구축

학교와 가정이 함께 일관적인 교육 방법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학부모가 비일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교사들 간에도 비일관적인 중재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실행 가능한 방법, 예를 들면 상세한 기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수준에서라도 일관된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비일관적인 반응이 제일 큰 걸림돌처럼 느껴졌어요. ... <중략> ... 사례를 보면 저희 전공과 학부모님이 이제 교사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약물을 줄였던 경우가 있었는데 학생의 문제행동이 심해졌던 경우가 있었고, 깜빡하고 아침에 약을 복용을 안 하거나 점심에 학교에서 먹어야 하는 약물을 보내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날은 교사들이 체감할 만큼 문제행동이나 다른 불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경우가 있거든요. (T-C-2)

학생들은 학년이 변화되고 담임 선생님도 변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대비할 수 있게 주변 인물이나 환경도 변화할 수 있으니까 이전에 누가 기록을 상세히 기재해서 인수인계를 받아도 아이의 문제행동에 대한 중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누가 기록을 잘 써서 인수인계를 해야할 것 같고, 또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생이 다니고 있는 치료 시설 같은 기관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학생들이랑 일관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T-D-1)

정확한 정의를 세워서 수업에 들어오는 모든 선생님과 꾸준히 소통을 하고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록으로 남겨놓거나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중략> ... 다음 학년도의 선생님과 전년도의 선생님이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T-D-2)

(3) 교원학습공동체의 활성화

PBIS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PBIS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성공 경험을 나누면서 PBIS가 교실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교원학습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저도 그냥 매번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내기 바쁜 것 같고 또 한 시간, 한 시간을 그냥 학생들의 안전만 생각하고 막 그냥 그 수업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기가 너무 정신이 없지만 ... <중략> ... 어떤 기록을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정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교원학습공동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교사들 간에 의견도 교류하면서 학교에서도 뭔가 실질적으로 PBIS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T-A-1)

4. 정책과 제도

1) 중재 충실도 향상

(1) 예방적 노력, 교육적 측면

PBIS에 내포된 긍정(positive)의 의미는 학생이 원하는 것을 모두 허용해 준다거나 부드럽게 지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선행사건 예방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행동에 교사가 어떻게

대처할지 즉, 후속결과를 제시하는 절차도 중재 충실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행동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행동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그 문제행동을 다시 하느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 이게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PBIS의 예방 측면도 중요하겠지만 학생의 문제행동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방법도 교사에게 연수를 해줘서 그런 방법을 더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T-B-2)

(2) 특수학교 성공 사례 공유

특수학교에서 PBIS 3단계 개별지원을 직접 실행했던 사례를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방식의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특수학교는 중점을 두고 있는 특색과 장애영역이 다양하므로 장애영역을 고려한 학교별 성공 사례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대회나 발표회도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제가 실제로 한 학생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협력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다 보니까 정말 되는구나 싶고 학생이 변화되고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저는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저처럼 직접적인 개별적인 사례를 실행하고 난 뒤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소개해 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 (T-A-1)

학교 단위에서 여러 선생님과 함께 학교 내의 사례와 경험들을 나누고 효능감을 가진 상태에서 성공 경험을 공유하는 일들이 학교에서 더욱 확산되고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PBIS가 정착되고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T-D-1)

실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부족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하는 교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아직 지체장애 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례가 많이 없어서 계획 같은 것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재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장애 유형별로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 중심의 재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T-E-1)

(3) 행동분석 전문 교사 양성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사를 PBIS 전문가로 만들기 위해서 K 교육청은 강도 높은 ABA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D 교육청에서도 관련 학과 및 학회와 MOU를 맺어서 행동분석 전문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이처럼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을 논의할 때, 특수교사들이 행동분석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예산도 편성을 하면 그만큼 관리자님들도 거기에 이제 중점을 좀 둘 것이고 학부모나 교사들의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사가 행동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많이 키우도록 하는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 (T-A-2)

2) 행정적 지원 마련

(1) 의사 및 전문가 네트워크

행동 지도와 관련된 것은 행동분석전문가가 지원됐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PBIS를 통해 의학적 처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의사와의 협력도 강조되었다. 그리고 의사가 제시하는 처방이나 상담 내용은 학부모만 유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학교의 PBIS 팀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PBIS 팀의 구성원 중에 행동분석가가 꼭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앞서 ○○○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교사가 수업도 하고, 문제행동의 기능도 분석하고, 다들 정신이 없잖아요. 교사는 수업에 있어 전문성을 기르고 문제행동에 관해 중재를 도와주는 것은 행동분석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중략> ... 그래서 구성원 중에는 행동분석가가 꼭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T-B-1)

저는 그 학생의 약물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도 PBIS 팀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이 문제행동의 기능보다는 내면적인, 어떤 호르몬 상의 영향들 때문에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약물 치료를 부모님만 가서 이야기 나누고 처방을 받는 것보다는 학교 담임교사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한다면 약을 복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 (T-B-2)

(2) 신학기 교원의 배치와 예산 편성

제도적인 측면에서 신규 교사나 전보 교사의 배치 일정이 고려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배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전에 학생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PBIS에 내포된 응용행동분석의 개념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행동분석전문가를 초빙하려면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 전보나 신규 발령 이런 게 빠듯하게 나다 보니까 저의 경우에는 개학 5일 전에 학교에 처음 오게 됐는데, 세 개의 학급에 들어가는 네 가지 과목의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학생 특성이나 개별적 중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시간은 전혀 없고 그냥 바로 이제 개학에 놓여지다 보니까 부서 업무나 수업 준비만 하고 중재 쪽에는 아예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 (T-C-2)

PBIS에 있어서 무엇보다 전문적으로 실행하려면 외부 강사 초빙이든지 결국에 이런 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서의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부르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치기도 하고 예산에 맞춰서 PBIS를 짜다 보니까 계획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 <중략> ... 풍족한 예산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T-B-1)

IV. 논의 및 제언

특수학교에서 실행하는 PBIS에 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지원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FGI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역량, 학부모 협력, 학교 시스템, 정책과 제도라는 4개의 영역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역량’ 영역에서 특수교사들은 PBIS에 대한 이론적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받아왔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특수학교에서 부적절한 행동이 매우 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PBI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였다. 특수교사가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등 장애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한 교사의 태도로 개방성, 수용성, 성숙함 등이 필요하며 교사들 간의 협력도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수교사들이 PBIS에 대한 실행 경험이 부족하고 참고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한 연구(김예리, 2017), PBIS 실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협력적 관계라고 한 연구(오혜정, 김미선, 2011), PBIS의 실행을 위해 팀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 연구(김우리, 2014)와 일치한다.

둘째, ‘학부모 협력’ 영역에서 특수교사들은 학부모의 비일관적인 태도, 소통의 어려움, 부적절한 행동을 지도할 때 교사 간 협조가 부족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의 진솔함을 바탕으로 학부모님과 신뢰를 형성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궁극적으로 학부모가 PBIS 팀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학부모들이 특수교사보다 외부 인력으로부터 행동 관리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고 있다는 연구 결과(권희연, 박중휘, 김미선, 2017)와 PBIS에 대한 부모의 인식 부족이 PBIS를 실행 과정에 어려움으로 도출되며 부모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연구(김예리, 2017)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학교 시스템’ 영역에서 특수교사들은 예산 부족의 문제와 학생 배치 및 교원 인사 시 PBIS 적용을 고려한 배치에 대한 적극성의 부재, 그리고 관리자의

PBIS에 대한 이해와 지원 부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PBIS 실행 방안과 의미 있는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용한 연수를 실시하였을 때 특수교사의 학급관리기술, 행동문제해결력, 대인관계효능감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심은정, 박지연, 2019).

마지막으로, ‘정책과 제도’ 영역에서 특수교사들은 PBIS에 관한 교원 연수들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실제로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조민균, 손승현, 2020). 행동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PBIS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동분석전문가와와의 협력, 그리고 전문가와의 사례 협의회를 체계화하고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홍주희 외, 2020).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PBIS가 특수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PBIS의 실행의 어려움으로는 부적절한 행동이 심한 장애 학생의 경우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부적절한 행동이 경미한 학생들의 경우에 PBIS를 통해 성공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이 심한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실제로 학부 과정의 과목이나 교육청 연수를 통해서도 PBIS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이 심한 장애 학생들을 사례로 PBIS를 계획하고 실행한 이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그 결과를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및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특수교사들의 PBIS 관련 지원요구로 외부 행동분석전문가의 지원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교사들의 행동분석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특수교사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지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며, PBIS에 대한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태도 형성을 위한 연수 및 실제 외부 행동분석전문가와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를 충분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재확인 할 수 있었던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특수교사들이 PBIS에 대해 유사한 의견과 지원요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견과 요구가 PBIS의 학교 현장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PBIS에 대한 특수학교의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경험과 지원요구에 대해 FGI를 활용하여 질적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진행자가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과정 중에 코디네이터가 질문에 대해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한 설명 및 안내, 그리고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추가 질문 제시 등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PBIS에 대한 경험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었다. 이처럼 FGI를 통한 질적 연구는 PBIS가 현장에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심도 있게 탐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FGI를 활용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PBIS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 새롭게 적용해야 하는 이슈에 대한 구성원들의 미묘한 의견과 생각 그리고 요구를 탐색하는데 FGI 연구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Stewart & Shamdasani, 2014/2018).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S시에 소재한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PBIS 관련 경험이 있는 특수학교 특수교사 중에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들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PBIS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를 선정하면서 일반학교에서의 PBIS에 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지원요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서 PBIS 경험이 있는 혹은 경험이 없는 특수교사들을 두 집단에서 세 집단 정도로 나누어 편성하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 그 경험과 지원요구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장애 학생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PBIS 혹은 ABA에 관한 서적이나 연수를 찾아 적극적으로 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특수교사의 경험과 지원요구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인식과 지원 요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PBIS에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 9명을 대상으로 대면 방식의 FGI를 진행하지 못하고 ZOOM을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FGI에서 활용하는 그룹 구성원들간의 역동성을 활용한 심도 있는 토론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면 방식의 FGI를 적용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PBIS의 중재 충실도에 대한 토론에 따른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임선영, 최하영, 2020). 왜냐하면 PBIS의 중재 충실도는 PBIS의 체제 구성부터 자료 수집, 증거기반 실제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전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기에는 참여자들의 PBIS 경험이 너무 다양하고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PBIS의 중재 충실도 부분에 관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Boeije, H. (2002). A purposeful approach to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in the analysis of qualitative interviews. *Quality and Quantity, 36*(4), 391-409.
- Cho, M. G. & Son, S. H. (2020). Analysi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competency and training curriculum contents for special needs education (SNE).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1*(9), 71-94.
- [조민균, 손승현 (2020). 특수교육요구(SNE)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사의 교수역량 및 교원 연수 교육과정 요구도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1**(9), 71-94.]
- Choi, E. W., Nam, K. U., & Shin, H. K. (2017). Current practices and perceptions of teachers in secondary special classes on educational assessments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and improvement plan consideration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8*(3), 225-252.
- [최은원, 남경욱, 신현기 (2017). 중등 특수학급 교사의 발달장애 학생 교육평가 수행 실태, 인식 및 개선방안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8**(3), 225-252.]
- Choi, Y. J., Park, S. Y., & Kim, J. H. (2019).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oward disaster: Focus Group Interview based Analysis Study. *Discourse and Policy in Social Science, 12*(2), 77-103.
- [최윤정, 박소영, 김주희 (2019). 장애인의 재난 인식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한 분석-.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12**(2), 77-103.]
- Hong, J. H., Kim, B. K., Park, J. Y., & Lee, S. H. (2020).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eam members who participated in individualized positive behavior support: The case of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5*(2), 1-29.
- [홍주희, 김보경, 박지연, 이수향 (2020). 교육청이 운영한 긍정적 행동지원 개별지원팀 구성원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5**(2), 1-29.]
- Jeong, G. B., Sim, H. Y., & Kim, H. S. (2018). A review of literature for sustainability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implementation: Focusing on experimental research.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9), 211-239.
- [정광범, 심현양, 김해선 (2018). 긍정적 행동지원의 지속 가능한 실행을 위한 문헌 고찰: 국내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9), 211-239.]
- Jeung, G. S., & Noh, J. (2011). Teachers' understanding, application status, and support needs regarding PBS according to different early intervention institutions.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1*(1), 1-21.
- [정길순, 노진아 (2011). 장애유아 교육기관 교사의 긍정적 행동지원 적용을 위한 기초조사

-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1(1), 1-21.]
- Jo, J. G. (2021). An analysis of the trend of the interventions research for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Korea.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25(1), 29-56.
[조재규 (2021). 국내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연구 동향 분석. **발달장애연구**, 25(1), 29-56.]
- Kang, S. K., Kwon H. S., Lim, K. W., & Kwak, S. C. (2020). Analysis of secondary school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on applying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 and support system.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 1155-1178.
[강성구, 권혁상, 임경원, 곽승철 (2020).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중재와 지원(PBIS) 체계 적용에 대한 중등 특수교사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 1155-1178.]
- Kim, K. O. (2021). Focus group interview on lecture evaluation experience: Focusing on the case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C-univers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2), 929-946.
[김경옥 (2021). 강의평가경험에 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C대학 간호학과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2), 929-946.]
- Kim, S. K., Kim, J. K., & Seo, J. Y. (2021).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the learning disability diagnosis request process: Focus group interview.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 107-132.
[김슬기, 김자경, 서주영 (2021). 학습장애 진단 의뢰 과정에 대한 초등학교 일반교사의 인식: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107-132.]
- Kim, T. Y. (2019). Research Synthesis of Foreign Countries on Challenging Behaviors of Young Children: 2011- October, 2018.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20(2), 33-65.
[김태영 (2019). 영유아 문제행동에 대한 해외 연구동향: 2011-2018년 10월.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0(2), 33-65.]
- Kim, U. J., Kim, A. H., Choi, H. S., & Kwon, T. H. (2011). Elementary special and general education teacher' s perceptions of curricular inclusive based on the special education law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other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15(4), 989-1017.
[김의정, 김애화, 최혜승, 권택환 (20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실시에 대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인식. **교과교육학연구**, 15(4), 989-1017.]
- Kim, Y. R. (2014). General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of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implementing SWPBS. *Special Education Research*, 13(3), 119-145.
[김우리 (2014).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SWPBS) 모형의 중요성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 **특수교육**, 13(3), 119-145.]
- Kim, Y. P. (2018).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in the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 229-236.

- [김영표 (2018).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에 관한 국내 연구 경향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 229-236.]
- Kim, Y. R. (2017). A qualitative inquiry on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the teachers and parents who participated in the grade-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2(2), 103-132.
- [김예리 (2017). 학년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참여한 교사 및 부모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52(2), 103-132.]
- Kim, K. Y., Nam, B. R., Kim, Y. R., & Park, J. Y. (2010).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Implementation and outcomes of universal support. *Special Education Research*, 9(3), 117-140.
- [김경양, 남보람, 김영란, 박지연 (2010).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관한 문헌연구: 보편적 지원의 실행과 성과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9(3), 117-140.]
- Krueger, R. A. & Casey, M. A. (2014).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5th ed.). Thousand Oak, CA: SAGE Publications, Inc.
- Kweon, H. Y., Park, J. H., & Kim, M. S. (2017). The paren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ecution status and awareness on the intervention for positive behavior support. *Korean Journal of Parents and Guardians*, 4(2), 1-18.
- [권희연, 박중휘, 김미선 (2017).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긍정적 행동지원 중재 적용 실태 및 효과성 인식. *학부모연구*, 4(2), 1-18.]
- Lee, H. J. & Kim, E. H. (2018). Literature review of studies implementing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2012-2017.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4(1), 217-237.
- [이효정, 김은혜 (2018).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 연구 최신 동향: 2012-2017년 국내외 학술지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34(1), 217-237.]
- Lee, K. S., & Park, J. A. (2016). A study on recognition of autism spectrum disorder among infants and toddlers by childcare teachers: With a focus on focus group interviews. *Korean Journal of Childcare & Education*, 12(3), 211-238.
- [이경숙, 박진아 (2016). 보육교사의 영유아 자폐스펙트럼장애 인식에 관한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3), 211-238.]
- Lee, Y. S., & Kim, Y. C. (2008).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Method and application*. Paju: Kyoyookbook.
- [이용숙, 김영천 (200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파주: 교육과학사.]
- Lim, S. Y., & Choi, H. Y. (2019). The effects of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in special middle school on teachers' classroom management skill, teacher-efficacy, and the Problem behavior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Behavior Analysis and Support*, 6(1), 41-69.
- [임선영, 최하영 (2019). 특수학교 중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특수교사의 학급관리 기술 및 교사효능감과 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행동분석·지원연구*, 6(1), 41-69.]
- Miles, M. B., Huberman, A. M., & Saldana, J. (2018). *Qualitative data analysis: A methods*

- sourcebook*.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Morgan, D. L., & Krueger, R. A. (1997). *Focus group kit: Volume 1-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Morgan, D. L., & Krueger, R. A. (2004). **포커스 그룹: 질적 연구방법** (신경림, 장연집, 김영경, 이금재, 최명민, 김혜영, ... , 김영혜 역). 서울: 현문사. (원출판년도 1997)]
- Oh, H. J., & Kim, M. (2011). Research o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wareness and implementation on classroom-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54*(3), 85-100.
- [오혜정, 김미선 (2011). 학급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및 실행.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4**(3), 85-100.]
- Oh, S. H., & Hwang, E. Y. (2019). Focus group interview (FGI) of th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participating in music therapy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1*(1), 141-166.
- [오선화, 황은영 (2019).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통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음악치료 활동 경험의 의미탐구. **한국음악치료학회지, 21**(1), 141-166.]
- OSEP Technical Assistance Center on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 Supports. (2009). *What is school-wide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 supports?* Retrieved May 4, 2009, from http://www.pbis.org/school/what_is_swpbs.aspx
- Park, H. J., & Kim, Y. Y. (2019).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play & education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4), 165-173.
- [박혜진, 김용영 (2019). FGI 분석을 통한 놀이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4), 165-173.]
- Park, K. O., & Seo, S. J. (2019). A Study on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of Evaluation for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Inclusive Elementary Schools. *The Korean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6*(3), 179-205.
- [박경옥, 서선진 (2019). 통합학교에 배치된 발달장애 초등학생의 성취평가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학습장애학회, 16**(3), 179-205.]
- Shon, Y. N., & Park, J. Y. (2015).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for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leadership team in special schools: Focused on teacher-efficacy, classroom management skill, and teachers' interaction behavior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50*(2), 197-224.
- [손유니, 박지연 (2015). 특수학교 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리더십팀을 위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교사효능감, 학급관리기술, 교사상호작용행동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50**(2), 197-224.]
- Shim, E. J., & Park, J. Y. (2019). Effects of action learning-based class-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training program on classroom management skill, behavior problem solving ability, interpersonal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pecial educator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35*(1), 71-97.
- [심은정, 박지연 (2019). 액션러닝 기반 학급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연수가 고등학교 특수학

급 교사의 학급관리실행, 행동문제해결력, 대인관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 연구*, 35(1), 71-97.]

Stewart, D. W. & Shamdasani, P. N. (2014). *Focus groups: theory and practice (3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Stewart, D. W., Shamdasani, P. N. (2018). *포커스 그룹 연구 방법론: 이론과 실제* (강종구, 김영표, 정광조, 최종근 역). 서울: 학지사. (원출판년도 2014)]

Sugai, G. (2018). *Getting started with PBIS*. Presentation delivered at the Northeast PBIS Forum, Mystic, CT.

Yin, R. K. (2013).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1st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Yin, R. K. (2013). *질적 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역). 서울: 학지사. (원출판년도 2010)]

<국문 초록>

특수학교의 긍정적 행동중재와 지원(PBIS)에
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지원요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중심으로

강 영 모 · 손 승 현 · 정 광 조

[목적] 본 연구는 특수학교에서 실행하는 긍정적 행동중재와 지원(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and supports, PBIS)에 관한 특수교사의 경험과 지원요구를 알아보았다. **[방법]** 연구 참여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 9명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하였다. FGI는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을 활용하여 약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녹화한 뒤 전사하였다. 자료는 질적연구 방법 중에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결과]** 교사의 역량, 학부모 협력, 학교 시스템, 제도적 지원이라는 4개의 영역과, 9개의 범주, 22개의 세부내용이 도출되었다. 세부내용은 특수교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지원요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결론]** 학교 차원의 PBIS는 특수교사의 수용적인 자세, 학부모의 협력적인 태도, 학교 관리자의 협조와 시스템 구축, 정책과 제도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게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특수학교, 긍정적 행동중재와 지원(PBIS), 경험과 지원요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논문 접수(Received): 2021. 11. 04. / 심사 시작(Examined): 2021. 11. 04. / 게재 확정(Accepted): 2021. 11. 30.